

2017년 5월 17일, 구좌읍 덕천리 김차순 씨 댁, 이현정 조사.

김차순(여, 1943년생, 구좌읍 덕천리)

- 줄거리: 제주도에는 집안의 조상으로 모시는 도깨비가 있다. 이런 집안에서는 음식을 장만하면, 가장 먼저 이 도깨비 조상에게 올리도록 되어 있다.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도깨비 조상이 집에 불을 붙여 자신을 정성껏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응징을 가한다는 이야기이다.

[조사자] 동네에 도체비가 나온덴 합니까? 덕천에, 옛날에.

[제보자] 아니 그 집안에. 도체비가 모신 집이 옛날엔 잊어낫주게. 경 허니깐 그 어디 만약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두 경 허는 딘 경 허주만은. 어디 장 난디 뭣 죽을 쐴 간덴 허나 허벅에 질엉 뎅겨낫주, 사둔이면.

[조사자] 끓죽예?

[제보자] 팥죽. 경 허면은 요게 허벅에다가 질엉 갈 때. 도체비 모신 집에는 그걸 우이로 걸영 놔두구 지엉 나가야 웨주게. 경 헌디 요걸 미리 떠놓지 안행 우허지 않으니까 불나낫덴 허주게. 경 허기 때문에이 도체비를.

견디 옛날은 그런 사연이 잊어낫지만은 이젠 그런 거 엊어.
이젠 그런 거 모신 디도 엉고이. 그런 상황도 엉고 이제는.

- 핵심어 : 도체비, 덕천, 사둔, 팥죽, 도체비 조상, 음식, 도깨비